이라크 自由作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補完해야 하는가?

(民軍作戰을 中心으로)

본 고(稿)는 1년 동안의 이라크 파병기간을 통해 전장에서 각 동맹군들의 민군 작전과 안정화 작전을 경험하면서 한반도에서 민군작전 수행시 적용시켜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소령 김 병 춘

약 렴

- 학군 29기 임관('91)
- 경희대학교 정책학 석사
- 스페인 특수전전문지휘자 과정 수료
- 육군보병학교 방어교관
- 육대 전문과정 수료(03-1)
- 現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작전처

목 자

- 1. 서 언
- 2. 이라크 자유작전 경과
- 3. 한반도 전장환경 특성과 민군작전 환경
- 4. 한반도 민군작전간 예상되는 상황
- 5.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 6. 결 언

1. 서 언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부대의 규모나 파병지역의 작전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군의 발전사에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 발전 에 귀중한 전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04년 2월 23일 부대 창설을 시작으 로 완벽한 파병준비 과정을 마치고, '04년 9월 12일 8,400여km 떨어진 이라크 아르빌로 병 력과 장비 270종 18,400여점을 성공적으로 전개시켰다. 이어 곧바로 인구 약 120만의 아르빌 시가지로부터 서쪽으로 약 5km 이격된 100만평 부지에 안전한 부대 주둔지를 편성 하고 본격적인 평화재건활동을 시작했다.

자이툰 부대가 추구하는 민군작전 개념은 현지의 문화, 관습, 종교 등을 존중하는 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병원, 학 교시설 등) 신속한 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 전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장비지원 등을 상 황에 부합되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재건과 평화정착은 물론 현지 주민에 게 재건의지를 북돋워 줌으로써 MNF-I¹⁾예 하의 28개국 15만여명의 동맹군 중에서 가 장 우수한 부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 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 장병은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항상 생각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굳은 각오로 "나 자신이 바로 대한민 국이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장차전에 대비하기 위한 값진 경험을 게 을리하지 않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 여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도 파병중 현 운데 지역주민들과의 친화에 최우선을 두고 - 지에서 획득한 자료와 현상관찰, 작전경험을



그림 1. 평화재건을 위한 그린엔젤작전



그림 2. 컴퓨터 교육

주 1) MNF-I: Multinational Forces in Iraq,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기초로 향후 한반도에서의 성공적인 민군작전 준비차원에서 작성하였다. 내용구성은 먼저 이라크 자유작전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한반도의 전장환경과 민군작전 환경을이라크와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에서의 민군작전간 예상상황을 기초로 보완방향을 제시하였다.

2. 이라크 자유작전 경과

21세기의 첫 전쟁인 이라크 자유작전은 9·11테러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 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리스트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불량정권을 와해시키기위해 실시되었다. 이 전쟁은 미군이 1991년 걸프전쟁 이래 소말리아, 아이티, 유고, 코소보, 아프간 등 과거 12년에 걸친 전투경험과 교훈을 기초로 43일 만에 종전을 선포하는 사상 초유의 단기전으로 패권국가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를 작전단계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쟁준비(여건조성)

1) 선제공격의 필요성 정당화

'02년 1월에 NPR(핵태세 검토 보고 서)의 비공식 공개,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 하고 같은 해 9월에는 NSS(국가안보전략) 발표 등으로 무력수단의 자유로운 사용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공격 전략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2) 미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 부정적 여론 전환

후세인 정권은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규정짓고, 이라크의 WMD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세계평화 유지라는 명분 아래 이라크전 수행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엔결의 1441호² 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유엔 무기사찰단의 사찰시한을 2차례에 걸쳐 연장하였으며, 전쟁결행직전까지 무력에 의한 무장해제 결의안을채택시키기 위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 동의절차 준수의지를 과시하여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일축시키려고 했다.

3) 이라크 지도부 내부 분열 유도 및 군의 대응능력 약화

공격 개시전 이라크 각계 지도자에게 e-mail을 발송하여 지도부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유도하고 이라크군의 조기 항복과 투항을 유도하였다. 또한 동맹군의 전력증강 및 전쟁준비 사항을 수시로 공개하고, 최첨단심리전 장비 매체(EC-130E, EC-130H, RC-135 등)를 운용하여 전쟁의 목표가 후세인과 추종자 제거를 통한 정권교체 및 이

주 2) 유엔결의 1441호('02. 11. 8): 이라크는 핵 사찰, 군축, 테러리즘 폐기의무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시간경과에 의해 후속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지속되므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적법하다.

켰다.

4) 특수부대 사전 투입에 의한 작전여 건 조성

전쟁개시 2개월 전부터 CIA산하 특수 작전단(SOG) 요원을 비즈니스맨으로 가장 하여 유럽을 경유하여 주요 전략목표 지점 (바그다드, 모술, 바스라)에 잠입시킨 다음. C4I 시설 등 현장 첩보수집활동, 교두보 확보, 해상교통로 확보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나. 결정적 작전

1) 斬首(Decapitation)작전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 인간정보 요원에 의한 정보를 종합하여 2003년 3월 20일 현지시각 5시 34분 결정적 목표인 후 세인 및 기회가 포착된 목표물에 대해 F-117과 미 해군 함정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로 바그다드의 주요 목표에 대해 선 별적 정밀타격을 실시했으나, 후세인은 공습 2시간 경과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결사항 전을 독려하여 후세인 제거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 충격과 공포(Shock & Awe)

2003년 3월 20일 20시 20분 선별적 공 습이 지휘부 제거에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라, '91년 걸프전 당시 1개월여에 걸친 폭격을

라크 국민의 해방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 _ 한 다음 지상군을 투입한 것과는 달리 참수 작전 개시 후 14시간 30분 만에 "신속기동 전략"개념에 의거 압도적 공습과 동시에 지상군 및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이라크군의 방어준비시간을 박탈하고 기습을 달성했다.

3) PLAN "D" 시행

이라크군의 게릴라 전술로 연합군 피 해가 증가함에 따라 남부 전략거점(나시리 아, 바르샤 등)을 장악하여 후방을 우선 안 정화하기 위해 3월 24~28일 발생한 모래폭 풍으로 인한 잠시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전 열을 재정비하고, PLAN "A"~"D"중 先 남·북부 전선 형성, 後 바그다드 점령이라는 PLAN "D"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지상군의 증원전력을 조기에 투입하고 정예 예비대를 투입하여 병참선 확보에 주력했다.

4) 결정적 전투

4월 5~9일 바그다드를 장악하여 잔적 을 소탕하고 북부지역으로 작전을 전환시켜 나갔다. 4월 10~14일에는 티크리트를 장악 하고 주요전투를 종결했으나 종전 선언시 후세인의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WMD 증거 미확보로 정당성이 결여됨으로 써 재건사업 관련 국제사회의 개입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유보했다가 5월 1일 부시 대통령이 에이브러험 링컨호에서 사실상 종 전을 선언했다.

다. 안정화 작전3)

1) 작전주안

신속히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종족·종교적 재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모든 이라크인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성 있는 정부를 수립한 후 안정화와 재건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여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2) 미국의 목표 이라크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의

목표는 그림 3과 같이 정치분야에서 합법적 인 정부를 수립하며 치안분야는 사회질서 및 테러분자들의 근거지를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 경제분야에서는 국 민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며 시장경제를 활성 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전 분야에 공통적 으로 기반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분야는 안정 된 기반환경 조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 인권이 보장되고 질서가 유지된 민주화된 이라크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림 3. 미국의 이라크 재건목표

3) 재건추진

최초 시작부터 최종상태까지 33~48개 월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표 1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국민투표를 거쳐 정부가 수립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치안이 안정되어 치안안정 권한과 임무가 동맹군에서 이라크군과 경찰로 이양 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재건이 진행되고 있다.

주 3) 안정화 작전이란 용어는 미 육군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전쟁과 전쟁 이외의 활동을 공격작전, 방어작전, 안정화 작전, 지원작전으로 세분화하면서 안정화 작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HQs, Department of the Army, FM 3-07 Stability Operations and Support Operation (Washinton US Army, 2003). 물론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안정화 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미 합참에서도 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참교리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미 육군대학 등의 군사교육기관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미의회나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평화활동이나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내용
안전확보 단 계	• 주 안: 군사작전에 대한 주민방해 최소화, 군사작전으로부터 주민보호 • 주요활동: 저항세력제거, 정권지도부 및 저항자 체포, 무기회수, 치안 질서 유지, 주민이동 및 교통통제, 기반시설지원 및 문화·자원보호
안 정 화 달성단계	 회복단계: 18~24개월 소요, 동맹군 임시통치기구(CPA)가 주도 안보협력 전환단계: 12~18개월 소요 주요활동: 주민 및 지원통제, 인도주의적 지원, 민사행정지원, 재건사업 등
새 로 운 체제전환	 동맹군 임시통치기구 지원하에 선출된 이라크 과도정부가 주도 종료시점에 美 국무부 예하기관인 이라크 군사고문단(OMC-I) 설치

• 주요활동 : 법과 질서강화, 새로운 국가이념 확대로 국가체제 건설

〈표 1〉 미군의 이라크 재건추진

3. 한반도 전장환경 특성과 민군 내 WMD 확산 가능성 등이 잠복되어 있다. 작전 환경

가. 한반도 전장환경 특성

1) 지·전략적 측면

첫째, 한반도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안보 불안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대표적인 불안요인으로는 무력충돌 및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대만 독립문제와 관 련한 중국·대만 및 미·중국간 무력충돌 가 능성, 미·중국간 패권경쟁 및 양극적 세력 (미·일과 중·러) 재편 가능성, 한·일간의 독도와 일 러간의 북방 4개 도서 영유권을 포함한 분쟁 가능성, 지역내 주한미군의 갑 작스러운 감축 및 철수에 따른 힘의 균형상 실 가능성, 북한의 WMD와 이로 인한 지역

둘째, 탈냉전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군사력 및 군사비를 축소 및 감소시켜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군사력 을 증가시켰고, 한반도 주변의 4강은 해외 투사형 신속대응군을 발전시키고 있다. 동아 시아 지역에 대해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 국의 위상을 지키고 21세기 테러와의 전쟁 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혁신에 의한 첨단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2005년 군사비는 약 3.800억 달러로서 미국을 제외한 G8국가 전체의 군사비보다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할 것을 예상하고 '첨단기술 조건하 국지·제한전'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6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여 상당수준의 전략무기와 첨단 군사 력을 이미 확보했다.

일본은 미국 다음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세계 2, 3위의 군사비를 지출하여 아시아 제 제력, 인구, 영토, 자원, 군사력 등 모든 면에 일의 정보, 해·공군력을 이미 확보했고, 최 서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근에는 '정보 RMA'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 다. 한반도 주변 4강은 표 2에서와 같이 경

〈표 2〉 주변 4강의 국력 및 군사력 비교⁴

(한국과 비교배수)

구 분	ا ا	일	중	러	한 국	북 한
영 토 (km²)	963만 (96)	37.8만 (38)	959.7만 (96)	1,707.5만 (170)	9.9만	12만
인 구 (명)	2억9,000만 (6)	1억2,700만 (2.5)	12억9,000만 (26)	1억4,500만 (3)	4,850만	2,150만
GDP (달러)	10조9,800억 (22)	3조5,670억 (7)	6조4,490억 (13)	1조2,870억 (2.7)	4,800억	227억
병 력 (명)	137만 (2)	24만 (0.3)	240만 (3.5)	100만 (1.5)	69만	110만
군사비 (달러)	3,990억 (28)	425억 (3)	600억 (4)	637억 (6)	140억	52억

특히 광역·장거리 정찰·감시능력(위성. UAV, AWACS 등), 장사정 정밀 타격능력 (BMs, CMs, PGMs, 전폭기, 전투함, 잠수함 등), 핵·화학·생물무기의 잠재 능력, 미사일 방호능력, 정보·전자전 능력 등은 현재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비대칭적 우위를 차지 하고 있다.

2) 자연환경적 측면

첫째, 남북단간 거리가 840km에 불과하

과 러시아와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일본 과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다. 따라서 상대측에게 지역(영토)을 양보하고 시간을 벌어서 반격할 수 있는 전투공간이 없고 적 을 영토내로 유인해서 국토가 주전장화되면 완충지대 부재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의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의 과밀·집중화 현상이다. 우리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은 국가 여 종심이 매우 짧고 국토가 협소하다. 중국 의 심장부로서 전체인구의 45%가 거주하고,

주 4) 국방백서, 합참 이라크 전쟁 종합분석 재구성.

정치, 경제, 금융, 외교, 문화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전쟁이 개시되면 서울을 고립시키기 위해 현 위치에서 진지변환 없이 수시간동안 시간당 50만 발씩을 공격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⁵⁰ 있다. 북한이 만일 화생방 탄두를 사용한다면 그 위협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주변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전략적중심들이 지리적으로 압축되어 있으므로 공격 노력의 집중이 그만큼 용이하여 잠재적 위협에도 매우 큰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전 국토의 3/4이 산악지형이다. 특히 한반도의 북부와 동부지역은 산악이 매우 험준하여 전차, 장갑차 등 지상장비의 기동이나 화력, 통신운용에 많은 장애요소가된다. 그리고 미래전의 핵심인 C4ISR 첨단정보기술도 산악지형에 대한 전장가시화는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군사작전의 직접적 장애요인 이외에도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안정화 단계의 민군작전간 저항세력의 근거지로 활용되므로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나. 한반도 민군작전 환경

1) 정치적 측면

북한은 전형적인 공산이데올로기와 김정일의 개인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독 특한 형태의 주체사상을 국가의 기본이념으 로 삼고 있다. 이 주체사상은 김일성 부자에 우상적 숭배를 강요하여 국민에게 획일적이 고 반복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집단적 환각 효과, 종교적 구속력을 보유하며 모든 주민 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또 한 정치체제는 당을 중심으로 국방위원회의 지도 및 영도하에 있어 강한 결속력을 보유 하고 있다. 정권기관은 1인 독재의 실천기구 로서 공익의 수행보다는 당의 혁명과업과 수령의 개인사상에 대한 집행 및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관료 화 현상과 부조리 등으로 인한 병리현상이 깊어지고 현실과의 괴리감이 증가되면서 소 외계층의 불만 및 반체제 저항요소가 점증 되고 있어 유사시 불만세력으로 등장할 가 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숙청과 집단격리 수 용으로 극단적인 반체제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전쟁발생과 동 시 정치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주 5) 북한은 사거리 180~700km의 SCUD 미사일 600여기와 사거리 1,200~1,500km의 노동미사일 100~200기, 약 500문의 장사정 다연장 로켓(240mm) 및 자주포(170mm), 그리고 약 1만 2,000문의 자주포와 견인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⁶⁾ 아프간전(아나콘다작전)시 미국의 1주일간 계속된 대규모 공중공격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은거한 알카에다군 대부분이 생존하여 결국은 지상군이 알카에다 조직을 수색하여 격멸하였으며, 이라크戰에서 미국은 대규모 정밀 공중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군 격멸에 실패하고 결국 지상군이 증원되어 단기간내 바그다드를 점령함으로써 전쟁을 종결시켰다.

2) 경제적 측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개인의 사적 소유제도를 부인하고 모든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회 집단적 개념을 수용하 여 대부분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부의 분배 측면에서는 사회공동 소비개념의 계획분배 를 실시하고, 분배체계는 사회적 지위와 출 신 성분별 차등으로 일종의 지배수단적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은 자율 성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통제에 의해 노동 력을 분배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관 대신 정치사상적 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 동적 노동관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실상은 '90년대 중반부터 계속된 자연재해로 최근 까지 극심한 식량난을 유발하여 국제적인 식량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 산량 향상을 위해 개인경작 허용 등 부분적 인 자본주의 도입과 사회주의 경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 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구조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정상적인 분 배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개 인별 소유욕구를 강하게 유발시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주민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적으로 주거이전, 직업선 택, 여행, 신앙, 예술, 양심의 자유는 철저히 봉쇄당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계층을 3계층 51부류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계층별로 주택, 식량배급, 진학, 직장배치 등에서 차별화된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당의 조정·통제하에 성분과 당성을 중심으로 계층 상속을 하는 것이다.

모든 문화예술은 정치도구화되어 전통문 화는 말살되고 사회주의의 공격적인 문화를 이식하여 경로사상을 혁명적 동지의식으로, 조상숭배나 미풍양속은 미신으로 전락시켜 혁명적 인간상이 사회적 선(善)이 되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신앙활동은 일체 불허한 상태에서 명목뿐인 각종 종교단체를 통한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위해 전원 당원인 종 교지도자를 중심으로 극소수의 종파별 신도 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는 당 정책 및 혁명사업을 선전, 옹호하려는 것 으로 당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하여 주민의 알권리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설득과 사상개조에 역점을 두며 사전검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주민통합이 나 전후 재건 참여에 대한 영향은 물론 기 득권을 보유했던 계층에 대한 강력한 통제 대책, 공보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4) 군사적 측면

북한 정권 창건 이후 50년 이상 형성 되어온 사회 구조적 특징중의 하나는 군사문 화에 젖은 병영사회적 성향으로 오직 혁명

의 기치 아래 지속적인 전쟁 분위기 속에서 제도화된 군국주의를 추구해 왔다. 그래서 현재 상비군 120만, 준군사요원 700만 내외 의(교도대 120만, 노동적위대 350만, 붉은청 년근위대 90만, 인민경비대 10만 등) 군사력 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북한 인구의 약 32%가 전투요원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장사정포 개발 및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속하면서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체제결속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95년부터 선군정치를 시행하면서 경제·식량 문제와는 별개로 지 속적인 군비를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장차 한반도에서의 민군작전에 대비하여 방대한 군부조직의 해체, 전환교육, 통합 등에 대한 통제는 필수적이다.

다. 북한과 이라크의 민군작전 환경 비교

1) 지리적 측면

북한의 경우 과거 한반도에서 발생하였던 수차례의 침략과 전쟁을 보았듯이 대륙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지리상의 이점으로 많은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안전과 연계한 대의명분 때문에 전쟁초기부터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라크는 최초 미국이 석유자원 우 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대의명분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은 향후 한반 도 민군작전을 수행할 경우 국제법상 우리 가 생각하는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이므 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민군작전 수행간 테러 리스트 및 물자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험준 한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항세력의 활동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2) 정치적 측면

북한의 정치적인 환경은 독재체제의 지속기간"이나 유지형태》를 볼 때 이라크의 정치적인 환경에 비해 열악한 민군작전 환경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첫째, 표면상 1당독재체제는 동일하나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은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될만한 종교적·종족적 대응세력이 없다. 이는 정치적인 체제유지나 정책수행에 있어서 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공고히 유지시키기에 보다 더 용이하다.

주 7) 이라크는 1968년 쿠데타에 의한 1당 독재체제가 형성되어 지속기간이 38년 정도이나, 북한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과정중 구소련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립된 지 60여년 정도로 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⁸⁾ 이라크는 1979년 후세인 대통령 취임 이후 25년간 1인 독재체제가 유지된 반면, 북한은 1945년 최초 김일성이 집권한 후 代를 이어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60여년간 정권이 세습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둘째, 1인 독재체제의 장기간 지속과 족 벌체제에 의한 계승이다. 이는 권력이 계승 되어도 체제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기존의 체제가 탄탄히 형성되었음을 의미한 다. 또한 장기간 1인 독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 유일사상 교육에 의해 태어나 서부터 1인 독재체제에 세뇌되어 있는 북한 주민은 이라크 일부 후세인 추종세력과는 근본부터 다른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장 차 한반도에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경우 북한군의 핵심 수뇌부가 마비되어도 지역별 로 기존의 독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이라크보다 높으며, 또한 치안전력 양성을 위하여 현지 군을 활용할 경우에도 저항세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음 을 시사해 준다.

3) 경제적 측면

이라크는 자원이 풍부하여 자본의 조 달 및 많은 국가들의 투자자본 형성이 용이 하나," 북한은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자급자 족체계가 붕괴되고 인적자본 이외에는 이점 이 없기 때문에 타 국가의 투자자본 부족으 로 민군작전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라크는 사회주의 를 추구하나 개방형태를 취해 수요와 공급 에 의해 어느 정도 경제구조가 체계를 갖추 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군국주의에 일관한 폐쇄적인 경제체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기본 산업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기본적인 경제활동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戰後再建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4) 사회·문화적 측면

이라크는 아랍계통과 쿠르드족 등 다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랍계가 주류를 이루면서 소수민족 중에서도 쿠르드족에 한 해서만 자치주를 인정하는 등 종족의 특성 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종교활동은 활발하나 사회·문화제 도 발전이나 이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은 상 대적으로 미약하고 문맹률이 높아 극단주의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북한은 단일민족이며 종교의 자유가 없고, 교육은 사회전반에 걸쳐 유일사상에 의한 획일화로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민군작전간 이라크와 같이 일부 소외된 부족이나 종파에 대한 테러조직 형성과 활동은예상되지 않으나, 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대규모 폭동 및 테러조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 9) 1996년 이후 UN안보리 조치 이후 원유수출에 의해 기본적인 국가 경제체계를 유지할 재정을 확보하여 식량, 의약품 등을 국민들에게 공급하여 기본 생활수준은 유지하게 하였다.

5) 군사적 측면

미국 등 강대국에 의한 선제공격 요건 으로 이라크와 같이 핵 및 생화학무기 보유 가능성은 동일하나, 군사규모면에서는 정규 군만 3배 이상이고 준군사부대까지 합하면 20배에 달한다. 따라서 군조직의 임무전환이 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소요는 증대되는 반면, 사전 군사훈련을 경험한 인 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 치안병력을 양성하 기는 용이하다. 그러나 조직특성상 핵심지도 부가 제거되더라도 지역별 지도자에 의해 군대를 재조직하여 군사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나 지역단위로 흩어져 있는 다 량의 각종 무기류 등은 민군작전을 수행하 는데 치명적인 위협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까지 비교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한 반도에서의 민군작전 환경은 이라크와 유사 한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포함 되어 있어 전 분야에서 치밀한 작전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궁극적인 평화재건 을 위하여 군사작전과 연계된 정치적인 집



그림 4. 이라크 자유작전시 회수된 무기류

단갈등의 해소, 민생경제의 회복, 주민들의 정체성 확립, 대규모 군사조직의 통제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 이라크 자유작전이 종전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점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4. 한반도 민군작전간 예상되는 상황

민군작전 차원에서 예상되는 위협유형은 크게 전쟁 이외의 다양한 위기사태, 한반도 안정위협 및 북한의 불안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북한 주민이 대량으로 탈출하는 상황, 북한에 대한 외부의 인도주의 차원의 개입이 진행되는 상황,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대외정책에 이용되거나통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내전이 발생하는 상황, 북한 내·외에서 북한당국에 의한 인질사태 등이 예상되며, 이를 분야별로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위기상황으로 체제유지와 지배기구의 핵심인 김정일과 노동당의 지도 기능 마비이다. 김정일의 사망, 암살, 실각이 나 노동당의 마비는 북한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그 혼란은 단기적으로 극복 하기 어렵고 치안질서 유지에 많은 작전소 요를 요구할 것이다.

둘째, 경제·사회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자원부족, 사회적 혼란과 체제위기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식량부족으로 단순한 경제정책 차원의 변화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권력구조나 체제의 질적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급기야 김정일 체제의 붕괴나 노동당 일당지배의 와해 등이 도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및 사회구조의 붕괴는 전쟁초기에 통제되지 못하면 전후 복구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민심확보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군사적 위기상황이다. 체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정치와 군사를 분리해서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북한체제가 직면할 군사적 위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군부가 분열하여 내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다른 정치적 위기나 경제·사회적 위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권력 진공상태 상황이나 쿠데타, 사회적 소요의 확대에 편승하여 군내부에서 서로의 영향력 확대 및 대내외 정책에 대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다음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하거나 대량살 상무기 개발을 지속하여 주변국의 예방적 공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 스스로 해 결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 성이 증대되면, 예방차원에서 한미연합을 통 한 군사개입의 폭은 한국군 단독개입의 가 능성보다 증대되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비록 모든 국가가 군사적 개입을 하지는 않더라 도 북한 재건을 위해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 질 것은 쉽게 전망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유형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개입과 UN PKO를 통한 개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붕괴 이전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체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심각한경제난 재발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변국의 대북개입은 어느 정도 예상되며, 이러한 지원을통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북한의 질서회복과 안정을 위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민군작전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장애요 소는 우선 북한 주민들이 피정복자라는 피해의식과 심리적 불안,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 반세기 동안 믿어왔던 사상적·문화적인배경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파괴될 경우 민군작전에 호응과 지지를 보내기는 커녕 북한식의 주체사상으로 단결되어 끝까지 대항하는 역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5.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완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이라크 자유작전 환경과 북한의 민군작전 환경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기초 로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에 대 비하여 당사국 입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신속한 전후복구를 통해 통일된 국가 를 건설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방향을 분야 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정치(정책)분야

정치분야의 목표는 합법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쟁개시 이전이나 초기단계에서 전쟁의 명분확보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전쟁수행단계에서는 군사작전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한반도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1) UN과 정부의 협의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6·25전쟁 경험을 보더라도 최초 UN 과 한국정부는 민군작전 시행에 대한 견해 차가 발생하여, 정부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 하지 못해 작전부대나 기타 조직과 사전 조율 없이 전쟁이 수행되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이 발생했고 결국은 아무런 정책 없이 각군별로 작전위주의 군사적인 점령만 실시했을 뿐 정상적인 민군작전을 수행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전쟁이전이나 초기에는 전쟁 명분 정당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UN의 신속한 주도를 유도하여 당위성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충무계획에는 초기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상황별로 각 부처가 조치해야 할 사항위주로 현황만 제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온 국민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결집하기 위한 대책들이 통일부를 주축으로 정부의 각 부처는 충무계획상에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만 이러한 틀 내에서 민군작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군정체제에 의한 통치보다는 정부주도 민사행정 지원

혹자는 전쟁이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의 부정적 인식으로 강력한 군사작전과 연 계된 군정체제에 의해 조기 장악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명 분에 대한 이행과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지 원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 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는 단일민족 으로 50여년간 서로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립해 왔고, 국민정서상 軍에 의한 통치는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연장과 반미의 식의 증대 등으로 남한에서조차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힘들며, 각종 비공식단체의 예상되는 집단적 행동에 의한 부정적 방향 유도는 전쟁지속능력 유지에도 크게 제한을 주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주체사상에 의한 반미의식은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 정체제에 의한 통치는 성과를 달성하기 곤란 하다. 따라서 민정중심의 통치를 위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과도정 부 구성, 지도자 선발, 각종 선거절차, 경제 적 지원, 치안유지, 문화적 공감대 형성방안 등 특정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한 종 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3) 북한주민의 대량이주 및 집단난민 발생에 사전 대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및 사회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북한주민의 대량이주나 집단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구 의 이동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장애요소, 노 동수급의 불균형과 도시문제, 사회적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동반하게 된 다. 따라서 전시 인구이동률10 20%를 고려 하여 단순히 동정심에 근거한 지원이 아니 라, 궁극적인 고용 및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등이 강 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계유지 및 이 주방지,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노동 흡수 능력을 증대 시켜야 한다. 그래서 산업구조조정은 현재 북한의 집단농장체제를 경쟁력 있는 기업농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에 따른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직업훈련은 현재 북한이 시장경

제체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기술교육등을 실시하여 취업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또한 실업대책으로는 소득보전을 위한 후속조치보다는 재훈련이나 군인 등의 전환훈련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실업수당 등의 직접적 금전 지급으로 단순 실업구제는 통일비용 증가에 따른 남한지역 주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4) 주민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북한지역 주민은 우리와 이념체제를 달리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주의적인 차원의 자기보존 본 능의 발달이다. 그 이유는 북한사회가 오랫 동안 정치적 억압으로 개인에 대한 통제와 핍박이 일상화되고, 경제적 궁핍으로 생리적 욕구마저 위협받아 왔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난과 물질적 결핍상황에서 절 도행위는 광범위한 대체 보상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70년대 중반 김정일이 후계자 로 지목되면서부터 간부들에게 선물을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급자나 주민들은 선물을 받지 못하므로 스스로 선 물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절도행위 등 비합법 적인 행위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배급이 중단되고 식량조달이 어렵게

주 10) 국방대학교, 「북한주민의 대량이동 억제와 고용증대 정책에 관한 연구」, 2002, p.26.

되면 국가재산 및 공장생산물에 대한 절도행위로 대체보상 노력이 표면화될 것이다.

셋째, 극단적 결핍상태로 인한 범죄의 증가현상이다. 그중에서 특히 범죄 1순위는 군대, 2순위는 젊은층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조직 특성상 강압에 의한 통제로 쉽게 극단적 상황에 도달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하기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곧 민군작전간 자기보존을 위해서 지역·계층간 갈등 및 지역분할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적 폭력행동, 가치관의 혼란,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의 증대, 신뢰감상실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로 표면화되어민군작전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방향은 민족공동체 구현, 지역·계층·세대간 심리적 갈등과 반목을 대화·화해·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체 의식 및 공동체 문화 정착, 사명감 고취 등에 중점을 둔교육 프로그램이 군사작전과 연계하여 초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야는 군에서 그동안 생각해 보지도, 연습을 통해 숙달된 분야도 아니다. 그러나 이라크 자유작전을 볼 때 매 우 중요한 분야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현실 여건을 볼 때 어려운 사안이지만 군에서는 전략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나. 치안분야

치안분야의 목표는 치안능력의 확보로 질서를 유지하고 저항세력을 무력화하는 것 이다.

이라크에서는 낙관적으로 판단만 하고 계획의 일관성 없이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따라서 치안의 확보문제는 군사적 작전 성공을 전쟁의 승리로 연계시키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1) 북한의 경찰 및 군조직에 대한 통제 및 활용대책 강구

이라크와 비교가 되지 않는 820만명 정도 규모의 수적으로 무장된 조직을 어떻게 등급별로 선별하고 통제대상에 대해서 어떻 게 특별관리할 것인지?, 이를 관리할 인원은 어떠한 병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재조직하여 활용할 것인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DDR¹¹¹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립 등을 포함한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이라크에서는 DDR과 관련해서 정보작전 (Information Operation)활동과 병행해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는 안정화 작전간 치안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타 작전활동까지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라크 자유작전에서 미군이 추진한 경과를 소개하면 그림 5와 같이 장시간이 소요되고 정부조직과의

주 11) Disarm(무장해제), Disband(해산), Reintegrate(제도권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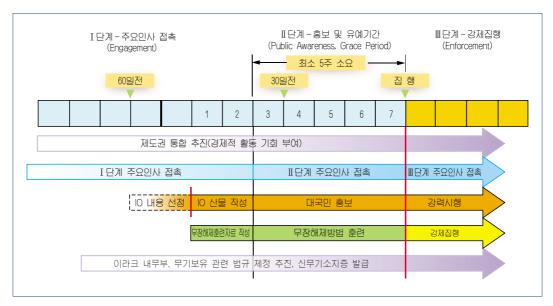


그림 5. 이라크 자유작전간 DDR 추진경과¹²⁾

많은 협조,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美 랜드연구소 국가안보연구팀의 연구자료^[3]에 의하면 "북한 정권의 붕괴 후 한·미의 결정적 작전은 120만의 북한 현역군인에 대해 이라크 자유작전처럼 단지 우회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군사작전을 심각하게 지연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단순히 포획하거나 무장해제시키는 것은하나의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쟁포로를 수감하는데 필요한 병력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이 갖춰진 미국 연방의

주감옥을 기초해 볼 때 감옥 교도관과 수감 자의 비율은 평균 1:3 조건에서 가능하다"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용인원은 감옥의 안 전을 위해 수용능력 대비 20~40%만을 수 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시 시사하는 바는 크다.

따라서 이라크 자유작전을 통해 본 사실을 기초로 북한의 정치지도자를 제외한 병력의 1/7에 해당하는 120만명에 대한 수개월 이상의 관리소요가 발생시 최소 40만명의 병력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병력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현대전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 12) MNF - I, "DDR 추진경과 중간보고", 2006, 7, p.12.

¹³⁾ 브루스 W. 베네트, "이라크 전쟁의 교훈 : 한국에 대한 적용", 『국방부 연구보고서』, 2006. 2.

뿐만 아니라 전후 이러한 조직에 추가하여 일부 행정조직을 포함하여 우리 식의 치안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방안과정상적인 기능발휘와 신속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자 및 장비의 지원, 치안전환 평가시스템, 치안전환을 위한 각 지역행정기구와의 양해각서 등에 대한 준비가필요하다.

2) 국경에 대한 대비책 강구

이라크戰에서 수많은 외부 테러단체가 유입되고, 해체된 치안병력은 국외에서 재조 직하여 조직적인 적대활동을 일삼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한반도는 그러한 가능성 이 더욱더 증대된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전략적 측면에서 반도국가로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해 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설령 북한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민주통일이 되었을 때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식적인 지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기득권을 보유한 계층은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자신들의 지위가 전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부분 제3국으로 도주 후 지원을 받아 저항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국경선 지역은 현재 계획상 직 접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두 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할 것인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현대전과 같 이 신속한 군사작전의 종결 추세에 비한다 면 대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경지역은 지형적으로 산악지역으로 경계에 많은 소요가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경선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통제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해상으로의 적대세력 유입대책 강구와 대규모 난민발생에 따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미 연합작전간 주민통제는 한국군 전담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누가 언제 작 전통제권을 행사하든지 한반도에서 양상은 한 미 연합작전에 의해 작전이 실시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연합작전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 투부대 위주의 운용은 미군 위주로 운용하 더라도, 주민과 접촉하는 민군작전분야만큼 은 한국군에 의해 수행해야 한다. 즉, 저항 세력을 소탕하거나 게릴라 색출은 미군이 주로 수행하되, 한국민으로서 정서가 동일한 한국군에 의한 주민통제, 군사작전 지원, 재 건을 위한 직접적 지원, 인도적 활동이 이루 어져야만 거부감 없이 주민과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요망효과를 달성할 것이다. 미군 역 시 전투부대이든지 민사부대이든지 한국민의 정서와 문화, 전통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만 저항세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고 주민이 스스로 저항세력을 색출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주민은 그동안 공산

주의 체제하에서 굶주려 왔기 때문에 자이 툰 부대가 이라크 자유작전간 지역주민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 것처럼 단순히 무엇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줄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존중과 배려로 접근할 때 상대적 피해심리를 스스로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 경제분야

경제분야의 목표는 국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선 전쟁수행 과 안정화 단계의 민군작전간 소요되는 엄 청난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 으로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 가고 물가상승, 각종 수지의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금확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제기구 및 민간출연금의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 쟁수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쟁 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발생하 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제협력 차원에서 평시 인접국가가 재난·재해 발생시는 융통 성 있는 지원과 전쟁국가에 대해서는 평화 재건 목적의 파병이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차후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물론 이라크 자유작전도 과거 6·25전쟁시 우리를 도와 준 동맹국들에 대한 보답도 있지만, 굳 건한 한 미 동맹체제에 기초한 인도적 차원 에서의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 위한 파병이 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 고 미래지향적인 평화유지에 매우 큰 역할 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초기부터 흔들림 없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 아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민간 출연금의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은 앉 아서 기다리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립저축식 운용 개념"14)에 의거 제도적으 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정부차원의 남북통일 협력기금 활용 방안 확대

남북통일 협력기금¹⁵¹은 북한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탄력적으로 마련하여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평화적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자금이다. 물론 現 법률을 그대로 해석하면 전쟁수행중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 이후의 재건

주 14) 적립적금과 같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불입하되 이에 대한 이윤을 제공하면서 대규모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념.

¹⁵⁾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여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1월 제정된 남북협력 기금법 제3조에 의거 1991년도부터 설치되었다.

비용을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통일 이후 10년 동안 1,400조의 비용이 지출된 사례를 기초로 완전한 통일 이후의 비용에만 고심해 왔다.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사회간접 자본시설은 구 동독의 그것에도 훨씬 못미칠 정도로 열악하다. 만약 이 상태로 통일을 위한 전쟁이 발생하고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남한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건비용이소요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법 제도 범위내에서 초기 민생치안 확보와인도적 지원으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통일환경 조성비용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하고, 재원조달을 항상 예측하여 현재와 같이 전액 소모하는 방향으로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 사회·심리적 분야

사회분야의 목표는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다. 이는 집단 및 개인 상호간에 신뢰를 기초로 해야 한다. 특히 군이 주둔하거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부대와 정부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즉, 어느 한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화된 사회건설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심리전의 활용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나 비공식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 적극적인 정보작전¹⁷⁾ 활용으로 사회적 분위기의 안정

이라크 전쟁시 미군은 공보작전을 중요 시하였으며, 공보와 민군작전, 심리전은 정 보작전 차원에서 통합되었다. 즉, 기만전술 의 구사보다는 진실만을 알리는 정확한 정 보를 시기 적절하게 제공하여 대외적, 대내 적으로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자국의 군사목 표와 확고한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용 하였다. 전시가 되면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 하고 이로 인한 집단행동을 유발하게 되므 로 군사작전의 방해는 물론 거부감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질서 유지와 안정된 환경조성을 위해 한국군의 정보작전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여 상황에 부합된 다양한 민군작전이 정보작전에 통합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주 16) 2005년도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1조 2,525억원으로 지출은 남북협력사업에 7,873억원, 경수로 사업 대출에 1,092억원 등 1조 2,525억원 전액이었다.

¹⁷⁾ IO 관련조직으로 MNF-I는 '04. 9월부터 IO와 PA를 통합한 전략통신참모부(STRACOM)를 운용하였으며, '05. 9월부터 정치, 경제분야를 통합한 전략효과참모부로 개편하여 운용중에 있다. MNC-I는 정치, 경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높은 수준의 공보에 주안을 두고, 군사작전과 관련이 많은 IO에 중점을 두고 IO와 PA를 별도로 운용하는데, IO는 효과처 예하에 PA는 사령관의 특별참모로 편성되어 있으나, 제대별로 IO와 PA조직을 융통성 있게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실무담당장교만 166명에 이른다.

2)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보완

현대전에 있어서 전시나 위기발생 및 우발상황 발생시 전구급 제대 기획장교, 양국 정부 비군사 기획관과 조기에 유관기관 협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97년 대통령 결심지시-56에 의거미 행정기관간의 협조를 위한 법적 장치를 구축하였고, '99년부터는 실제 위기상황이발생한 지역에서 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유관기관 협조체계(합동유관기관 협조단)¹⁸⁾ 개념을 문서로 구체화하여 각 전구사령부작계의 부록으로 반영하고, 예하 태평양사합동유관기관 협조단(PACOM JIACG)¹⁹⁾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 이러한 기구는 합참의 민사상황실에 파견되는 유관기관 연락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기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 전구내에서의 한·미 연합작전을 위한 연합사 차원의기구는 연합사 기획참모부에 정치-군사연구단 수준의 연합유관기관 협조단(CIACG: Combined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이 편성되어 훈련간에 시험 적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현대전 양상을 고려 한·미

양국간의 전략적 수준의 유관기관 협조기구 와 연합사의 작전적 수준의 유관기관 협조 기구를 편성하고, 이 두 기구간의 관계 및 한·미 MCM과 SCM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양국 정부 및 SCM 수준의 협의 를 거침으로써 효율적인 민군작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간단체(NGO) 활용방안 강구

NGO는 한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운데 국가의 정책을 견제하고 정책시행을 감시·감독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감시·감독하는 기능과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까지 실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미 미국은 '91년 이라크전쟁 직후 수행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경험을 평가하며,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관련 NGO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군내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라크 자유작전에서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군이 전장에서 NGO를 활용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NGO들이 인도적 지원 및 구호·복지 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

주 18) 합동유관기관 협조단(JIACG): Joint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미 합동교범 3-08, 「합동 유관기관 협조단」참조).

¹⁹⁾ 이 기구는 위기시 또는 복잡한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작전간 전구급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들 이 전역계획 작성에 유관기관 협조관련 사항과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 국제정부기구,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의 임무와 자원파악 및 연락유지, 정치-군사 및 이양계 획 발전에 대한 조력,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을 위한 계획 발전시 유관기관 협조 활성화, 전구 급 제대 기획장교 및 분석관들에게 지역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은 사회단체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지원이지, 우리 군이 보는 시각과 같이 군사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는 대상으로 보고 있음은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따라서 NGO를 민군작전의 성공적 보장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 속에서 NGO 활용 노력들이 필요하고, 국가나 군이 어떻게 통제하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 대책이 나 대안을 수립하여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 군사분야

1) 종합적인 처방 차원의 민군작전 개념 정립

작전실시간 민사군정 개념과 전후 복 구단계에서의 민군작전, 그리고 전후 복구단 계내에서도 작전환경별 작전주안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현행 계획상에 개 념이 정립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 으나 충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후 복구 안정화 단계에서 어떻게 민군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종합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 하다. 이라크戰에서 2003년 5월 1일 미군의 종전선언 이후 안정화 작전이 시작된 지 3년 이 경과되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 충분 히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상되는 상황을 기초로 한 개념 정립과 대비가 필요 하다. 개념 정립의 핵심은 그림 6과 같이 북 한 주민생활과 연관된 언론, 가치관, 사회조 직, 정치, 교육, 경제체제 등 모든 분야에 기 초하여 이를 수용하여 유기적으로 조정·통 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6. 민군작전 추진 기본개념

또한 전후 복구단계간 민군작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치안확보 및 민심확보 부분에 투입되는 역량을 적시적절하게 그림 7과 같이 단계화하여 작전주안을 조절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즉, 1단계에서는 우선적인 치안확보에 주안을 두되민심확보가 중요하며, 2단계에서는 치안확보

와 민심확보, 재건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치안평가 결과 안정이 회 복되면 치안확보와 민심확보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작전주안을 본격적인 재건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어 민군작전의 최종상태가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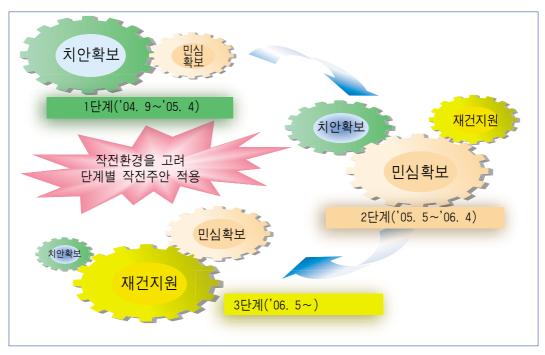


그림 7. 이라크 자유작전에서의 작전환경에 부합된 작전주안 적용

2) 민사부대 편성 보강

첫째, 민사부대의 운용개념이다. 민군작 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전투부대가 갖 지 않는 민사, 심리, 공병, 수송, 의무, 헌병 과 같은 전문 민사기술²⁰¹이 필요하며, 민간 구호기관 등 지원 및 협조기관의 역할과 기 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효과적인 민군작전 차원에서 평시

주 20) 미군은 평시 민사사령부 및 96민사대대를 특수작전 요원 중에서 우수 자원을 선발하여 민간 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한 후 학위를 부여하고(지형분석, 역사, 문화재, 전쟁법 등 석·박사 양성) 야전군 이하 제대의 참모부를 별도로 편성, 운용하여 민군작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교육훈련이 가능한 현역 위주의 민사부대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나, 군 구조 및 자원 등 현 여건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부대편 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미군의 경우처럼 우리도 특전사 예하에 1개 여단을 민사전문 부대21)로 양성하여 평시에는 평화유지활동과 같은 MOOTW²⁰간 민사업무를 수행토록 하 고, 전시에는 민사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現 민사여단은 평시에 민군작전에 대한 교육훈련, 재난구 조, 평화유지활동과 같은 현행 임무와 민군 작전 관련 계획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다. 또 한 민사부대의 동원훈련간 교관 및 조교로 활용함으로써 동원훈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민사대대에 편성된 요원이 전역할 경우 추후 민사요원으로 동원지정・관리함으 로써 최소의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력 발 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전장환 경처럼 고밀도의 인구집중 지역, 산악의 발 달로 저항세력의 활동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1개 민사여단이 특별시나 1~2개 도, 1개 대대가 1개 시 또는 8~10개 군, 1개 중대가 2~3개 군에 대한 민군작전이 가능한지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편성상의 문제점으로서 전시 창설 되어 운용되는 민사부대는 여단으로부터 소 대까지 규모만 상이할 뿐 행정, 치안, 구호, 선무. 자원관리 등과 같이 상·하부대가 동 일한 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 업 무추진면에서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운용은 각 제대별로 야전군에서부터 사단급 까지 지역 및 제대별로 배속 및 지원되므로. 민사부대간의 상하 연계성보다는 작전부대 와의 연계성 및 업무범위와 영역, 기능을 더 욱 고려해야 한다. 이는 안정화 단계에서 재 건을 위한 민군작전 환경을 평가하고 소요 를 종합하여 기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내 많은 단체나 주민과 접촉을 유지하는 등의 예상과업 수행이 곤란하다. 또한 작전부대 지휘관에게 배속 및 지원시 민사부대 지휘 관이 민군작전 참모로서 역할을 해야만 하 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라크 자유작전이나 자이툰 부대의 민군작전 경험을 기초해 볼 때 민군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의 재건과 연 계되어 있으므로 참모기능 중 민군작전을 총괄하는 민사처를 편성하여 민사기획, 대외 협력, 소요종합, 사업지원 등 업무가 원활하 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사여단이 주축이 되어 민군작전을 수행하든지, 아니 면 작전부대의 일부를 통제하여 임무를 수 행하든지 원활한 총괄기능 수행과 체계적 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주 21) 신면우, 「한·미 연합 민사작전 발전방안」, 합동참모대학, 2005. p.60.

²²⁾ MOOTW: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전쟁 이외의 작전.

3) 평시 자원관리 강화

가) 민군작전 환경분석 자료 구축

6·25전쟁 및 이라크전쟁시 미국의 민군작전 결과는 단순히 정책적 과오와 민 사부대의 편성 부실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 니라, 민군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구축해 놓지 못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민군작전 수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시설 및 지원, 사회제도, 행정단위별 주민 수, 주민들의 가치관 및 성향 에 이르기까지 민군작전 수행 중 적시적인 제공으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식을 상세하게 종합하여 구축(데이터 베이스화)함으로써 민사부대 및 민사요원에게 적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노력이 소요되는 사업을 現 합참 민사심리전 참모 부가 전담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관련 NGO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나) 인적자원 확보

민군작전을 수행하는 인적자원의 전 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사업무는 현행업무가 아니고 민사부대 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평시 참모부 구성도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민사 5대기능과 20개 세부기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종합하는 것 이기에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군이 쉽게 접 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 이라크 자유작전은 군사작전이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민군작전에 실패하면 더 큰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미군은 그래도 평시 민사사령부 및 96민사대대를 특수작전 요원중에서 우수 자원을 선발하여 민간대학 위탁교육으로 학위를 부여하고(지형분석, 역사, 문화재, 전쟁법 등 석·박사 양성) 야전군 이하 제대의 참모부를 별도로 편성, 운용하여 민군작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군의 민사부대는 현역시절 민 군작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예비군 위주로 편성하고 연 1회 동원훈련만 실시하고 있으 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군작전 파병 유경험자가 전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하 여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 가 필요하다. 이는 예비역으로 차후 민군작 전시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 나 한국군의 파병 성과로 획득된 민군작전 감각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달성할 것이다.

둘째, 민사부대에 최소한의 실무요원을 평시부터 선발하여 전문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전시 모체부대 창설요원으로 임무수행이 용이 하도록 준비하고, 정부의 민사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자원관리를 담당하고, 민간행정분야 직무지식이나 민사관련법, 연합민군작전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 물자·수송자원의 확보

민군작전간 소요되는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은 북한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작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외부자원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원을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군수품은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더라도 안정화 단계의 군수소요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수송체계는 주로동원 지정된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세작전이 종결되자마자 정부는 경제를 완전가동 체제로 복원하기 위해 동원해제가 요구될 것이나, 반대로 군의 입장에서는 안정화 작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규모 자산을 필요로 하고

특히 수송자산의 부족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기에 적절한 조치 미흡으로 민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면밀한 작전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소요를 기초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형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민군작전 권한과 이양시기 문제 등 보완해야 할 분야가 많지만, 이미 연구되어 제의된 바 있고 현재 활발히 보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겠다.

를 완전가동 체제로 복원하기 위해 동원해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보완해야 할 사항 제가 요구될 것이나, 반대로 군의 입장에서 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각 기능들은 분야별는 안정화 작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인도주 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그림 8과 같이 상호의적 차원에서 대규모 자산을 필요로 하고. 유기적인 협조와 통합을 통해 민군작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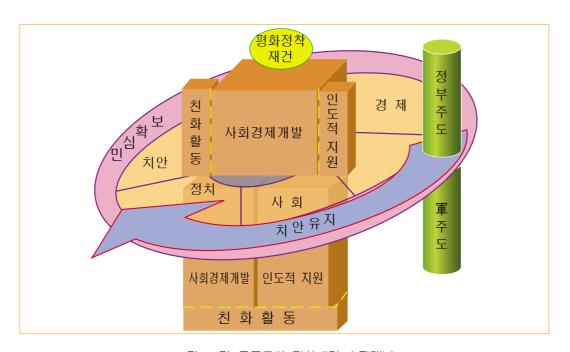


그림 8. 민·군주도하 평화재건 추진개념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치안이 유지되어 정치, 사회, 경제분야가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군이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친화활동을 통해 민심을 확보하고, 주민이 주체가 될수 있도록 사회, 경제개발 및 인도적 지원을실시한다. 이후에는 정부주도하에 제 기능이사회경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부분적이지만지속적인 친화활동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평화재건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언

역사상 수많은 전쟁을 보면 초전의 무력 전에서는 승리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의 지지 를 얻지 못하여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 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전례를 많이 보아 왔 고, 21세기 美 이라크戰은 그 좋은 예이다. 미국은 이라크戰에서 군사작전은 조기에 종 료했지만 민군작전의 부진으로 제2의 월남 전으로 전략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안정화 작전은 장기전으로 돌입하여, "민군 작전의 성공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다"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민군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상황이 발생할 경 우에 우리는 한·미 연합작전체제하에 군사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한국정부는 군사작전을 지원하면서 통일을 준비할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군작전은 한·미연합 군사작전의 성공을 지원하고 한국정부의 북한지역 자유화행정을 지원함으로써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 마무리 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러한 민군작전의 중요성을 기초로 북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민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분야에서는 합법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쟁초기 단계에서 전쟁명분 확보로 군사작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UN이나 국제단체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한반도 정서와 과거 경험을 기초로 군정보다는 정부주도의 민사행정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며, 북한 주민을 통합하기 위한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치안분야에서는 주체사상으로 세뇌 되어 있는 다수 주민과 북한정권, 군부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충분히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성을 고려 국경 통제대책을 강구하면서 주민들의 민심을 확보하여 주민 스스로 적극적인 치 안확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제분야에서는 국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대책에서부터 인도적 국제기구와의 역할분담, 정부차원의 협력기 금 조성 등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 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민군작전의 기반구축과 아울러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NGO를 적극 활용하되, 궁극적인 민군작전의 목표달성에 기여토록 적절한 통 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분야는 민사부대의 효 율적인 운용개념과 민군작전 소요에 부합된 편성을 보완하고, 평시 자원에 대한 자료구 축과 인적, 물적, 수송자원 확보로 적시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지원 및 막대한 재건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이라크 자유작전간 민군작전에 참가하면 서 현장에서 획득한 자료와 경험을 기초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시 우리가 추구하는 통 일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는 민군 작전 체제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민군작전 의 중요성과 더불어 현 한 미 연합 민군작 전 체제의 보완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개 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전 투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승리 하기 위한 민군작전 분야의 발전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 1.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분석". 2002.
- 2. 국방연구원. "이라크 전쟁분석과 전망". 2002.
- 3. 신면우. "한 · 미 연합 민사작전 발전방안". 합동참모대학. 2005.
- 4. 브루스.W.베네트. "이라크 전쟁의 교훈: 한국에 대한 적용" 국방부 연구보고서. 2006.
- 5. 국방대학교. "북한 주민의 대량이동 억제와 고용증대 정책에 관한 연구". 2002.
- 6.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6 "합동 민사작전". 2005.
- 7. 박헌옥. "이라크전쟁과 민사작전 교훈". 합참21호. 2003.
- 8. 서명석. "이라크지역 민사작전 수행을 위한 발전과제". 합참민심부. 2003.
- 9. 미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57 "합동민사". 2003.
- 10. 미 육군성. 야교 3-07 "안정화 작전 및 지원작전". 2004.
- 11. MNF-I CG Casey, "Two years of progress" MNF-I, 2006.
- 12. Ajami Found, "Iraq and the Arab's Future" Foreign Affairs, 2003.
- 13. CPA, "Creation of the Department of Border Enforcement", CPA Order 26, 2003.

